

ㄱ. 증인 연행방식과 연행지에 대해서

*이 중 김군자 할머니가 순사이름도 나오니까 연행에서 사례로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한두줄인데 너무 길지요?

김복동: 경남 양산 출신 1926년생인 피해자 김복동은 만15세가 된 1941년에 구장 반장이 일본인과 함께 와서 어머니에게 데이신타이로 군복공장에서 3년간 일해야한다고 해서 연행되었다. 광둥,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로 끌려다니면서 군위안부로 강요되었고 전쟁말기에 간호일을 강요받았다.

김군자: 1926년생인 피해자 김군자는 16세에 강원도 철원 순사 최철지의 수양딸이 되었다. 17세가 된 1942년 3월 최철지가 가라고 해서 심부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군복입은 계급장이 없는 군복을 입은 조선남성을 따라 갔으나 그대로 강제로 연행되어 훈춘 긴가쿠위안소로 가게 되었고 1년 반정도 이후인 1943년 훈춘근방 고까시로 연행되어 군위안부가 되길 강요되었다.

박영심: 생년? 확인요--생인 피해자 박영심은 평양 근교에서 17살 때(1938년 3월) 군 병원에 일자리가 있다는 일본 순사의 말에 속아 난징(南京)에 끌려갔다가 위안부가 됐다. 난징의 금수로 위안소에서 약 3년간 지낸 후 상하이(上海)를 거쳐 버마 전선 拉孟 위안소로 갔다가 2년 후에 다시 마츠야마(松山)로 끌려갔다. 당시 拉孟에 주둔한 부대는 버마방면군 소속의 제 56사단 보병 제 113연대 등이었다. 연합국의 격렬한 공격으로 1944년 9월 초순 수비대는 옥쇄하였다. 방공호에 숨어있던 박할머니 등 4명의 조선인 '위안부'들은 중국군에 잡혀 곤명포로수용소에 7개월 정도 수용되었다가 북한으로 귀향했다.

하군자: 1928년생인 피해자 하군자는 1944년(당시 만 15세 내지 16세) 위문단을 모집한다는 조선남자의 말에 응해 한코우 적경리로 강제로 군위안부가 되었다, 당시 이 지역은 曉부대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다.

조선내 위안소

윤두리: 1928년생인 피해자 윤두리는 1943년 9월(이때 나이 16세) 부산진역앞의 남부경찰서 순사가 연행하여 군인에게 인계한 후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부산영도에 있던 제1위안소로 가게 되었다. 해방후 귀가

송신도: 제일동포. 1922년생 충남에서 대전에서 16세에 남의 일을 하던 중 일본여자가 일하고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으로 가게 됨. 무창의 위안소인 '세계관'에서 처음 군위안부가 되었다. 1938년이다. 일본군이 무창삼진(武昌, 漢口, 漢陽)을 점령한 해에 해당한다. 중국에 가서 3, 4년이 지났을 쫓이라고 하니까 1941이나 42년의 일일 것이다. 이후, 岳州를 본거지로 삼고, 부대와 같이 이동하는 위안부로서 종종 '출장'을 나가게 된다.宜昌, 沙市, 長安, 廬山, 蒲圻

신도가 기억하고 있는 부대는 3사단, 13사단, 40사단, 峯부대(독립혼성 제17여단)등이다. 예를 들어, 1943년2월부터 3월에 걸쳐 전개되었던 강북 전멸작전 때에 제3사단의 사령

부는 應山으로, 峯부대의 사령부는 악주에 있었다. 岳州의 위안소에서 威寧의 위안소로 옮긴 얼마후, 신도는 일본의 패전을 알았다.

노예화의 사례

제 24사단 산하부대 산 제3475부대의 내무규정(1944년 12월 20일 부터 시행)에는 군 인구락부라고 명명하고 있었는데 방어진구내 위안소는 지방인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구분하고 유흥비는 일제 현금으로 하게 하고 있었다. 내무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위안소 규정의 부칙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영업부의 공유관념을 철저히 하고 점유 관념을 엄금할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키스를 금한다는 등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안부에 대한 감정을 엄금하고 성욕 배출 대상자로만 국한 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볼 수 있다. 한편 위안부에 대해서는 ‘업부는 사용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누구라도 공평을 제1로 하여 사용자로서 최대 奉公하는 것에 염두에 두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라도 몸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여 봉공에 빠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사 세심하게 주의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¹⁾라고 하였다. 奉公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으로서 국가에 봉사한다는 전근대적 관념을 위안부들에게 주입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군위안부에 대해 철저히 노예적 상태를 강요하고 있다.

---좀더 멋지게 해석을 해야 할텐데.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네

학살사례

이 세줄 정도 넣으면 어떨까

약 3,000명의 일본군 수비대가 방어하던 버어마와 경계지역인 운남성 등충(등월) 요새는 중국군의 공격을 수개월간 버티다가 드디어 9월 14일 완전 소탕되었다. 몇 명의 군위안부가 있었는지는 이견이 있다. 여기에서 7-15명의 조선인 여성과 아기가 학살되었다.

*지역의 발음을 확인하는 중이에요.

아래는 참고사항

개별적인 살해에 대한 증언이 쉽게 보여지는데 비해 학살사례는 직접 경험자의 증언을 통해서 구하기 어렵다. 집단적인 학살이 가해진 곳에는 그만큼 비참한 상황이었기에 생존자가 남아 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인군위안부들의 학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곳은 태평양의 트럭섬이나 연합군과의 접경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모두 대단히 험한 곳이고 연합군과 일본군의 치열한 접전이 있어 학살이 아니어도 이 인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학살에 대해 엇갈린 기술들이 나온다.

원문:

방선주, 「일본군 ‘위안부’의 귀환 : 중간보고」,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1997, 역사비평사

1) 浦添市사편집위원회, 浦添市史(1984년 발행) 92/문1

등충(등월) 약 3,000명의 일본군 수비대가 방어하던 이 요새는 중국군의 공격을 수개월간 버티다가 드디어 9월 14일 완전 소탕되었다(이곳의 격전양상을 담은 미군의 사진들을 소개한다). 이곳에 몇 명의 '위안부'들이 있었는데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했다. 센다 가코오는 약 40명의 '위안부'가 있었는데 그 중 30명 정도가 한인이었다고 적었고,²⁾ 김일면은 여기서 생존한 일본인 중위의 '옥쇄'를 인용하면서 7명의 한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했다.³⁾ 한편 중경 『중앙일보(中央日報)』 특파원이 1944년 8월 23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곳에는 구석에 몰린 일본군 300~400명과 부상자 500명 속에 아직도 30여 명의 한인 영기(營妓)가 생존하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왜놈들은 “고생나무 밑에서 거문고를 연주한다”는 속담처럼 죽을지 살지 모르는 처지에서도 쾌락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웃고 있다(城中尙有朝鮮營妓 30餘名 不知死活的倭寇 眞是黃蓮樹下操琴 苦中作樂)⁴⁾. '영기(營妓)'란 병영 안의 군기(軍妓)의 약자이고 이 보도는 성 안에서 도망나온 노무자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중 몇 명이 이 전투에서 살아났는가. 앞에 인용한 황걸(黃杰) 장군의 작전일기를 보면 9월 16일자에 “아군 각부는 13일 밤부터 부단히 맹공격을 가하여 14일 아침 10시까지 적을 완전히 숙청하였는데 적의 장병 20여 명과 '위안부' 13명을 포로로 하였고 전리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적혀 있으니 최소 17명 이상이 죽은 것이 된다. 이들 '위안부'의 조사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는데 다만 국방부에는 기록이 있을 것 같고 또 당시의 국부군 기관지 『소탕보(掃蕩報)』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 기사들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많다. 죽은 '위안부'에 대한 기록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렵게 찾은 이들의 매장장면을 찍은 사진과 부수되는 설명문을 제시한다. 도량을 파서 '위안부'의 시체들을 그 속에 던지고 있다.

매장인원들이, 국부군과 일본군이 쟁탈전을 벌였던 등충에서 죽은 여성들을 매장, 처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군 병영에 억류됐던(kept) 한국인 여성들이다. 사진기자 프랑크 맨워렌.

Photo by T/4 Frank Manwarren. Burial party starting to work at interring the women killed at Tengchung while the Japanese and Chinese troops fought over the city. Most of them are Korean women kept in the Jap camp. (CBI-44-60371)

김일면은 '옥쇄'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수비대 지휘관으로 뽑힌 오다(太田)대위는 지금까지 부상병의 식사와 대소변을 거두고 있었던 한인 '위안부' 7인이 살아 남으면 “일본군의 내부 정보가 셀 것을 두려워하여” 죽이기로 결정하고, 밤에 여자들이 공포와 피로로 지하호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두 발의 수류탄으로 처치하게 하였다고 했다.⁵⁾ 한편 센다 가코오는 다른 증언을 채용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인 '위안부' 8~9명은 군인들과 같이 전투하다 죽든가 최후의 돌격을 결정한 전날 밤(12일) 수류탄을 터뜨려 집단자결했다, 일본인 '위안부'들은 한인 30여 명을 성벽 밖의 산림 속으로 피신시켰다. 이것은 살아서 사단사령부에 보고하라고 탈주명령이 내려진 11명 중 유일한 생존자라고 주장하는 한 포로병(吉野孝公)의 증언인데, 그

2) 千田夏光, 『續 從軍慰安婦』, 講談社, 1985, 21쪽. 또 『從軍慰安婦 慶子』, 光文社, 1981, 254쪽에는 38명인데 남평·등충 지역의 조선인 위안부 61명 일본인 위안부 16명이었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다.

3) 金一勉 編著, 『軍隊慰安婦』, 1977, 214쪽

4) 『中央日報』 1944. 9. 17 수록. 黃蓮樹는 黃棟樹라고도 하는데 잎사귀나 뿌리를 씹으면 매우 쓰기 때문에 고생·고난을 묘사할 때 쓰인다.

5) 김일면, 앞의 책, 216쪽

는 이 30명을 숲속에서 보았으며 수용소에 가보니 등층에서 온 일본 군인 포로는 한 명도 없었고 일본인 ‘위안부’가 6명 있었으며 그들도 등층에서 온 여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존자의 증언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곳에서 매우 건강하게 보여지는 20명의 일본군 포로 사진(사진 참조 SC 247372호 사진)과, 성 밖에서 13명의 한인 ‘위안부’가 포로가 됐지만 수비대가 마지막으로 저항하던 시가지 한모퉁이에서는 15명의 ‘한인 위안부’와 아기 시체가 쌓여져 있었다는 중국 기자의 현장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적이 완전숙청된 지 한 시간도 안 되어 나는 곧 시내로 들어가 전장을 탐색하였다. 화약과 피비린내 냄새는 시가에 충만했으며 형제들은 전리품을 가득히 들고 웃으면서 돌아오고 있었으며 통신병들은 전선줄을 건느라고 분주하였다. 동문(東門)의 피복공장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오르고 있었으며 몇 명의 사병들은 잣더미 중에서 전리품을 찾고 있었다. 그 사이에 적의 시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와력(瓦礫) 사이를 조금만 부주의하면서 걸으면 저 말랑말랑한 신선한 시체를 밟게 되는데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흐르며 벨이 나오고 팔이 떨어져나가고 각색각양의 무서운 형상은 눈뜨고 볼 수 없었다. 담모퉁이의 15명의 조선인 군‘위안부’의 시체는 한곳에 쌓여 있었는데 가슴과 유방이 들어내어져 있었고 홍색 녹색 옷들이 서로 얼룩거렸으며 그 중에는 아직 기저기를 찬 아기까지 끼여 있었다(『중앙일보』 1944년 10월 16 일자에 彭河清기자가 쓴 「騰衝之捷」 참조).

敵人剛肅清不到一小時 我即趕入城中……牆角裏十五具朝鮮營妓的屍體 堆陳一處 袒胸露乳 紅綠相映 當中還夾着一個襁褓嬰兒

필자가 보기에는 이곳 15명과 아기가 쌓여 있던 장소는 일본군이 압박되어 마지막으로 저항하던 성(일변 약 1,000m 정방형) 안의 동북 모퉁이였으므로⁶⁾ 여기에 ‘위안부’들이 몰려서 군인의 성처리, 세탁, 취사, 간호, 탄약운반 등을 맡고 있다가 12일 밤 최소 7인으로 추산되는 한인 ‘위안부’가 처단되었고 8~9명으로 추산되는 일본인 ‘위안부’의 일부는 자살했든가 벌써 시가지 여기저기에서 죽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곳의 15명의 군‘위안부’ 시체는 최소 절반 이상이 한인의 시체이며 아기는 물론 한인 군‘위안부’의 아기였는데 한국 여성들이 나이 어린 처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출행에 참가한 한인 ‘위안부’는 20명 좌우로 생각되고 그 중의 7명 정도가 유탄에 죽거나 사살당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처참했던 아시아판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을 국민정부에서는 뉴스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놓았다고 당시 신문에서 보도했으니 이들 죽은 ‘위안부’의 참혹상과 생존한 ‘위안부’의 영상들이 혹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환기해둔다. 버마에서 중국 운남성에 들어간 일본군의 수는 약 1개 사단이였으므로 여기에 배속된 ‘위안부’는 약 300~500명이라고 센다 가코오는 추산한다(앞의 글, 41쪽). 그런데 버마에서 살아남은 일본군 8개 사단 부대들은 영인(英印)군과 미군 또는 국부군에 밀려 태국 쪽으로 후퇴작전을 하게 되는데, 보수적으로 따져 한인 군‘위안부’가 1개 사단에 200명이었다고 쳐도 태국에 후퇴한 군‘위안부’는 1,600명은 되어야 된다. 또 태국은 원래 동남아 군‘위안부’ 배급의 중간기지였으며 여기에도 일본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버마와 태국의 일본군에 배당된 한인 ‘위안부’는 최소한 2,000명은 있어야 했는데(최대 5,000명) 일본 패전 당시 이곳의 한인 ‘위안부’는 1,5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⁷⁾ 적어도 1,000명 정도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다. 전장터에서의

6) 이곳의 전투와 지형에 대하여는 國民革命戰史 第三部『抗日禦侮』第九卷(臺北, 민국 67년); 防衛廳 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イラワジ會戰』, 1974 등 참조

7) RG 226. OSS檔;XI 20581 Siam-Korean Organization(Date of Report 7 September, 1945). 참고로 기타 한인들의 숫자를 적으면 연합군 포로수용소 수위 900명, 일본군 소속 5,000명, 도합 7,400명이었다.

사망, 후퇴시 밀림에서의 사망, 토착인에 의한 유괴, 인도군이나 소수민족 용병들에 의한 납치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또 태국에서 배를 타고 귀향한 군'위안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확실치 않다. 필리핀에서 볼 수 있는 승선자명부가 없기 때문인데 알다시피 태국 민간에 지금까지 한인 군'위안부' 출신들이 생존했었다.

2. 위안소체제